고성능·고효율…벤츠가 내놓은 '전기차 끝판왕'

S클래스 수준의 정숙성·승차감
제로백 5초…항시 최대토크 유지
1회 충전으로 309km 주행 가능
EQC 구매시 가정용 충전기 지원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EQC 주요 제원

항 목	더 뉴 EQC 400 4MATIC
길이X너비X높이(mm)	4770X1890X1620
모터 최고 출력(hp)	408
모터 최대 토크(kg · m)	77.4
모터 최고 속도(km/h)	180
배터리 종류 및 용량(kWh)	리튬이온, 80
1회 충전 주행거리(km)	309
가속력(0 –)100 km/h)	5.1
가격(만 원)	1억500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 관련 기술 브랜드 EQ의 첫번째 순수 전기차인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EQC'는 럭셔리한 주행 감성과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전기차의 미래를 보여준다. 새롭고 현대적인 유저인터페이스(UI)와 친환경 마감재를 적용해 차별화한 EQC 실내(오른쪽). 사진제공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진화에 따라 럭셔리카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내연기관을 넘어서는 파워와 효율성,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첨단 사양을 갖춘 전기차가 등장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 브랜드 EQ에서 내놓은 첫 순수 전기차 EQC가 대표적이다. '벤츠와 전기차의 미래는 이런 것'이라며 야심차게 내놓은 전기 SUV인 EQC를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 포천까지 왕복 120km 구간에서 시승했다.

●전기차의 미래 보여주는 EQC만의 디자인, 성능, 서비스

쿠페 스타일의 매력적인 외관을 지닌 EQC(더 뉴 EQC 400 4MATIC)를 마주하면, 벤츠가 이 차를 가리켜 '진보적인 럭셔리'라고 주장한 이유가 쉽게 납득이 된다. 그릴과 헤드램프까지 감싸며 날개처럼 펼쳐진 전면부 블랙패널과 대형 삼각별 로고만으로도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을 물씬 풍긴다.

물론 벤츠가 디자인만으로 '진보적인 럭셔리'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디자인 안에 감춰진 탁월한 성능, 주행가능 거리와 퍼포먼스의 균형, 엄격한 NVH(소음, 진동, 불쾌감) 제어까지를 포함한 것이 벤츠가 말하는 전기차의 새로운 럭셔리다. 실내는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해 내연기관 차와 차별화했고, 로즈골드 소재의 액센트로 포인트를 줘 EQC의 감성을 살렸다.

주행 성능 면에서 가장 놀란 부분은 정숙성이다. 엔진의 소음이 사라진 전기차는 전기 모터와 타이어 소음이 상대적으로 크게 들리는데, 저속은 물론 고속에서도 전기차 특유의 '웅'하는 소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숙성을 강화했다. 밖에서는 보행자를 위해 만든 가상 엔진 사운드가 들리지만 실내는 너무 고요하다. 그야말로 도로를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고 묵직하게 주행하는 운전의 질감이야말로 미래에서 온 듯하다.

승차감과 주행 감성만큼은 벤츠의 최고급 세단 S클래스 수준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다. 최대 토크가 곧바로 발휘되는 전기차의 특성 때문에 저·중·고 모든 영역에서 폭발적인 가속력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EQC의 주행가능 거리는 1회 충전으로 309km다. 현재 국산 소형 전기 SUV의 주행 가능 거리가 400km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소 짧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2톤이 넘는 공차중량(2440kg)과 제로백 5.0초의 퍼포먼스를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수준이다. 회생제동은 패들쉬프트를 통해 4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를 사용하면 브레이크 조작없이 가속 페달만으로 가감속이 가능한 원페달 드라이브까지 가능하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미래지향적이다. 벤츠의 최신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BUX(Mercedes-Benz User Experience)가 장착되어 있어 음성 명령을 통해 내비게이션, 주행 모드, 충전 및 출발 시간 준비 등을 작동시킬 수 있다.

EQ 스마트 코칭 서비스도 EQC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다. EQC를 구매하면 1대1로 전담 직원을 배정해 가정용 충전기 설치를 도와준다. 전국 공용충전소(유료)와 잠실 롯데월드 타워 지하 2층의 메르세데스-벤츠 충전존에서 무료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미 차지 멤버십 카드'도 제공된다. 더 뉴 EQC 400 4MATIC의 가격은 1억500만 원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BMW '뉴 X1' 출격…소형 SUV 시장 요동친다

어드밴티지·M 스포츠 2가지 트림

BMW 코리아가 프리미엄 컴팩트 SAV(Sports Activity Vehicle) '뉴 X1'을 공식 출시했다. 2015년 출시한 2세대 X1의 부분변경 모델이다. 디자인을 대폭 개선하고 다양한 최신 편의기능을 추가했다. 쿠페를 닮은 날렵하고 스포티한 스타일이 매력적이어서, 소형 수입 SUV 시장에서 차별화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는 엔트리 라인업인 뉴 X1 xDrive20i(가솔린) 모델을 내놓았다. 디자인 및 옵션에 따라 어드밴티지와 M 스포츠 패키지 2가지 트림이 있다.

디자인의 주요한 변화를 살펴보면 전면부와 후면부가 이전 모델보다 더 스포티해졌다. BMW 키드니 그릴은 크기를 키웠고, 새로운 LED 헤드라이트와 직사각형 모양으로 변경된 안개등. 새롭게 디자인된 대형 공기흡입구 등을 통해 존재감을 강화했다.



파워트레인은 4기통 트윈파워 터보 가솔린 엔진과 8단 스텝트로닉 스포츠 자동변속기를 조합했다. 최고출력 192마력,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7.4초만에 도달한다. 복합연비는 9.8km/l다.

BMW 인텔리전트 사륜구동 시스템인 x Drive가 장착되어 있으며, 크루즈 컨트롤과 주차거리 알림 시스템, 후방 카메라, 파킹 어시스턴트 등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을 탑재했다. 하이파이 라우드 스피커 시스템, 전동식 테일게이트, 2존 자동 에어 컨디셔닝, 6.5 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 등의 편의 사양도 업그레이드 됐다.

가격은 뉴 X1 xDrive20i 어드밴티지가 4900만 원, 뉴 X1 xDrive20i M 스포츠 패키지가 5270만 원(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가격)이다. 원성열 기자

현대차 '아이오닉 롱기스트 런' 성료



현대자동차 사회공헌 캠페인 '2019 아이오닉 롱기스트 런'의 대미를 장식한 마라톤 대회 '롱기스트 런 인 서울'의 출발 장면. 사진제공 | 현대차

3만5288명 기부자들 '지구 21바퀴' 달렸다

참가자 이름으로 나무 5000그루 식재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사회공헌 러닝 이벤트인 '2019 아이오닉 롱기스트 런' 캠페인과 캠페인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라톤 대회 '롱기스트 런 인 서울'을 9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성황리에 진행했다.

'아이오닉 롱기스트 런'은 현대자동차가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친환경 사회 공헌 캠페인이다. 7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109일간 진행된 '2019아이오닉 롱기스트 런 캠페인'에는 3만5288명의 기부자들이 참가해 총 85만2875km를 달렸다. 이는 지구를 21바퀴(1바퀴 약 4만km) 넘게 달린 거리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아이오닉 롱기스트 런 참가자의 이름으로 '아이오닉 포레스트'에 약 5000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아이오닉 포레스트'는 아이오닉 롱기스트 런을 시작한 2016년에 조성했다. 아이오닉 고객, 자원봉사자, 롱기스트 런 러너들이 모여 나무심기 활동을 펼친 결과 현재까지 1만5250그루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원성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희소식 무릎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분~
▶며칠 차고있어 보니 부드럽고 시원해서 좋구나!
▶무릎이 편하면 만사가 즐겁고 행복하다!
휴대용
참 무르팍엔
무르팍엔이 생각난다~
• 제품명: 무르팍엔 • 제품 무게: 100g
• 제조/ 판매원: 솔원 • 제조국: 대한민국
• 사용방법: 불편한 무릎에 착용
名作 名品
착용해보니 그것참 신통하구나!
불편한 무릎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생체(生體)에너지 무릎밴드 참 무르팍엔이 출시되어 무릎이 불편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천연광물질에서 다량의 파장이 방사 및 방출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무르팍엔에는 4가지 광물질(겔라이트, 그라파이트, 칠보석, 의료용 자석)이 침착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파이트는 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로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의 30배에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고가 신소재이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무릎에 착용하여 생활해보시면 시원하고 가뿐해짐을 느낄 것이며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겉옷 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고 활동성이 좋아 누구나 일상생활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무릎이 편안하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불편한 무릎을 위하여~
상담문의: 무르팍엔 1670-5467

평범하지 않은 중년을 위한 주름개선 미백크림
와~ 주름개선 정말 좋구나! 바르고 확인해보세요
주름이 없어야 나이가 어리게 보입니다.
나이보다 젊어보인다는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부러움의 시선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힘이 됩니다.
50~60대가 되면 예쁘다는 말보다 피부가 좋다, 나이에 비해 젊어보인다, 동안이다 라는 말이 더 듣기 좋습니다. 연예인들을 봐도 나이가 들어도 맑고 투명하고 주름없는 피부가 눈에 띄는데 돈이면 누구나 다 된다는 식으로 포기하고 막연히 부러워만 하실건가요?
우선 나이가 어려보이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름이 없어야 하고 노화현상인 주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주름의 수가 달라지고 보이는 나이가 바뀌게 됩니다.
최근 서남해안황칠협동조합과 주에이스제약과 공동연구개발한 장보고 황칠크림은 황칠나무 추출액을 함유한 주름개선, 피부미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이미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재구매로 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얼굴주름은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가 나게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탄력이 생겨 윤기가 짜르르 흐르는 탱탱함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드립니다.
미백 • 주름개선
2중 기능성 회장품
JANGBOGO WHANGCHIL Cream
피부가 고와지면 괜시리 외출하고 싶어진다~
나이보다 젊어보이고 싶으신 분들의 전용크림
고귀하신 분들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1세트: 장보고 황칠크림 2개 + 황칠미용비누 1개
*판매원: 서남해안황칠협동조합
*용량: 70g/개
*제조원: 주에이스제약
남녀공용입니다
중년 남성에게도 너무 좋아요~
어떤 명품크림들과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피부가 고우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번더 쳐다본다
상담문의: 주름개선 황칠크림 1600-2865

허리가 불편해 고생하시는 분~
▶허리건강 비밀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며칠 착용해보니 그것 참 좋구나!
전기가 필요없는 허리따따의 놀라운 성능
휴대용
제품명 : 허리따따
제조/ 판매원 : 솔원
제원 : 길이 : 대, 중, 소
두께 : 5mm/ 무게 : 210g
제품용도 : 불편한 허리에 착용
제품특징 : 가볍고 반영구적
손빨래 가능
제조국 : Made in Korea
名作 名品
착용해보시고 확인하세요!
전기 없이 스스로 체온과의 열교환으로 발열되는 허리따따 발열밸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4가지 광물질(겔라이트, 그라파이트, 칠보석, 의료자석 등) 중 그라파이트라는 신소재는 천연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이상 팽창시킨 물질이며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보다 30배,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물질이고 불편한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받혀 줄 것이다.
또한 가볍기 때문에 겉옷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게 착용할 수 있어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허리가 편하면 만사가 편하다!
불편한 허리를 보호해주는~
상담문의: 허리따따1600-1047